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1월 19일 (제725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복도 전염된다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육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련다. 정말 나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될 같이 법사에 잘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나는 2014년, ‘복 있는 자가 됩시다’라는 슬로건을 공표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복, 복 그러냐?” 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자들이다. 아니, 복 받지 않으려면 뭇 하러 예수 믿겠는가? 쉬지 못하고, 절제하고, 헌금하면서 복을 못 받으면 누가 예수 믿겠는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대복은 물론이고, 더 불어 법사에 잘 되는 복이 없다면, 솔직히 나부터 예수 안 믿으련다. 이 땅뿐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또 내가 얼마나 세상을 잘 아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으면 한다. 요셉이 바로의 집에 들어가니 애굽이 복을 받고, 옥에 들어가니 간수장이 복을 받은 것처럼.

신명기 28장에도 복 있는 자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는다고 했다. 내 집에 사는 우양과 식물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며, 심지어 내가 만지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복이 전염된 것이다. 이는 내 복이 넘쳐야 가능한 일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운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기업, 직장,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자.

2014년 첫 해외 집회에 부쳐

2014년 첫 해외집회가 시작된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를 비롯하여 바리나스(Barinas), 바르키시메토(Barquisimeto), 이렇게 세 도시에서 집회를 가졌었다. 특히 2010년의 카라카스 세계 목회자 세미나는 수도 카라카스의 체육관에 만여명의 세계 목회자들이 몰려들고, 신문, 방송 등 각 언론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었다. 또한 그 세미나의 반향은 대서양을 건너 우크라이나(Ukraine) 목회자 세미나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목사님의 메시지는 현지 목회자들

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고 다시 집회를 열고 목사님을 초청했다.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대조적인 현상들은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다. 집회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광했던 자들조차도 교권에 굴복하여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행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베네수엘라 집회 때마다 목사님을 도왔던 에드가르(Edgar) 베네수엘라 경제부 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의 안위이다. 차베스(Chavez) 전 대통령의 사망 후, 베네수엘라 정정이 불안했던지라 그의 안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벨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섬긴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실까? 반드시 주의 날개 밑에安然히 거하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끝으로 늘 그래왔듯이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님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2010 베네수엘라 세계목회자 세미나 광경)

에게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한쪽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보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라구나(Laguna) 선교사의 표현대로 목사님의 메시지는 잘 들으면 복이지만, 곡해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초대교회 시절도 제사장과 관원들,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곡해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을 통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역사를 낳지 않았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루이스(Luis) 목사님의 의견이 분분했던 당시 세미나에서 목사님을 옹호했다가 퍽박을 받고 어려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32)는 말씀 역시 변개할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목사님 개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지만,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위의 말씀 그대로 금세와 내세에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죄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다. 목사님이 누차 외치시는 것처럼, 이제 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호4: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고,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이 늘 말씀하시듯, 목사님과 우리 일행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수많은 적대세력들, 완전 반대되는 시차 등등,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에 목사님은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오늘날, 내일도 세계로 나가신다. 부디 목사님의 건강과 낱씨, 집회의 성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

2014년 새해 첫 집회에 반드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하 나님, 도우소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베네수엘라 집회

▶일시: 2014년 1월 14일(화) ~ 23일(목)

▶장소: 카라카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3~9)

토양이 좋아야 결실이 좋다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그러나 무조건 심기만 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는 좀 아는데, 파종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겨우내 묵은 땅을 뒤집는 일입니다. 요즘이야 트랙터로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소가 끄는 쟁기로 했는데요, 쟁기로 땅을 뒤엎으면 땅 속에 있던 잡초며 돌맹이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골라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인생농사의 첫 작업도 묵은 지경을 뒤엎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했던 것들, 죄절감, 악하고 나쁜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13:3-8).

그러나 옥토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100

'말 잘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올해 농사가, 아니 인생 농사가 바로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늘 부정을 달고 사는, 늘 안 된다고 하는 당신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말 잘해서 인생의 가을에 결실 많이 거두라고, 늙어서 눈물바가지 되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을 잘 뿌려보세요.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건강하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 된다니까요, 건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다윗이 자신이 죽어리라는 사울에 쫓기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만사가 형통하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씨를 뿌렸더니 이сро엘의 왕이 됨은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지 않습니까(대상29:28)? 다윗은 너무 옛사람이라 실감이 안 납니까?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칠산리에서 1명 놓고 시작한 제가 '세계교구'라는 말을 심고 뿌렸더니,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뿌리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말이 씨'라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씨앗을 권합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에 이의가 없지요? 그럼 돈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돈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히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고후9:6). 사실, 목사가 돈 얘기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로 들릴까봐서요. 그러나 이 말을 못하는 목사는 성도

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자식이 아픈데 주사가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나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납니다. 콧바람에도 날리는 작은 겨자씨를 심어야 커다란 겨자 나무가 되고(막4:31), 한 알의 밀알을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요12:24). 곧 옥토 중에 옥토인 하나님 땅에 무언가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 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

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리라 보라"(말3:10),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첫열매와 심일조, 헌물을 심으면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려서 뭇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것을 노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는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두 렷돈, 곧 자신의 전부를 연보께에 넣은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것입니다(눅21:1~3).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돈이 없다고요? 천천만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맥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희

를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9:10~11). 심을 마음만 있으면 심을 씨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심어 그것으로 넘치게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쟁 먹고 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오를 때고기 잡고 쇠는 달궜을 때두드려라

어디 그렇습니까? 심으라고 주신 씨, 곧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이플타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오랜 항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심지어 자식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도 절대 종자만은 먹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 죽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한 후 그것을 심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들도 사과 속의 사과 씨는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사과 씨 속의 사과를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모아 바울에게 보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빌4:19). 헌금 조금 모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과 씨 하나 심었는데 엄청난 사과를 거둔 셈입니다. 엘리야에게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드리고 그 집의 밀가루 통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 심일조로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된 록펠러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 최장수 부를 누리고 있는 록펠러 가(家)...

그때도 하나님께 심는 것에 인색하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렘루아!

사과 속의 씨는 셀수 있지만 그 씨 속의 사과는 셀수 없다

배, 60배,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묵은 지경을 갈아엎으십시오. 지난 것들을 털어버리십시오. 과거는 쓰레기일 뿐이며, 강을 건넌다면 옛묵은 버려야 합니다. 새해를 지난 달력을 뜯어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뜯어낼 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땅이 좋다고 다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지 무화과나무가 나지 않는다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눅6:44).

제가 좋은 씨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이고,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제가 금년 들어 벌써 몇 번째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2014년 새해를 맞아 선교사님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행복하고 축복 받는 삶!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축복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입니다. 러시아어의 ‘축복’이란 단어는 ‘축복, 혹은 좋다’란 단어와 ‘말’이란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단어는 다정하고 좋은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 깊은, 그리고 정확하면서도 축약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창12:2-3)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로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축복’이란 단어는 산상수훈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5:3-11). ‘9가지 축복’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축복’이란 뜻은 그저 ‘행복’이란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행복한’이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생의 변화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기쁨도 잠시 동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허무는 존재, 상황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6:22)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과 기쁨은 깊은 슬픔, 또는 상실, 혹은 고통 속에서도 영향을 받거나 파괴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마5:3-10). 러시아어의 ‘축복’이란 단어를 한국어로 표기하자면, ‘다시없는 기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복’, ‘완벽한 기쁨’,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란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받는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의 꿈의 문이 열리고, 당신의 삶속에 더 많은 기회와 여러분의 강함, 성실함, 그리고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절함과 정직함으로 일하길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 해가 되시길,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있길 바라며, 더 좋은 아이더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바램, 염원, 그리고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오. 힘, 시간, 재주, 가능성, 돈,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2014년에는 축복과 더없는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에 좋게 기억된 사람도 있고,

나쁘게 기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다 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신임하는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자기 멧돼지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죽이라고 유언하는데, 암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도망갈 때 저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

주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길르앗 바실래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이는 암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이 도망할 때 바실래가 그를 극진히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 시므이는 독한 말로 저주하고, 바실래는 위함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까지 기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회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목회할 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저가 해를 끼쳤고

심하게 대적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돌아켜보고, 올해부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 좋게 기억되는 성도가 됩시다. 한 여인이 마가복음 14장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합니다만, 예수님은 저가 힘을 다해 헌신했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믿음과 감사로 헌신할 때 주님은 기억해주시니다.

2014년 새해,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성도로 기억되는 복된 새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인산 예수중심교회 김초대 목사

::NewYork Report::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됩시다!”라는 표어를 통해 우리는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복을 받았음을 되새기며 가슴 깊은 감사로 시작하게 되는 새해입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한 뉴욕대학교(NYU)는 명문으로 이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 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성별을 고르는 칸에는 성이 여섯 개가 나오며,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간주되고, 동성연애자들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기분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철학이나 사회학 같은 이론들을 다루는 수업에서 다루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성(性)은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권력이 결정했던 것으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심도 깊게 다

룹니다. 한편, 예수가 최대의 관심사는 “몸(Body)”인데, 몸의 신비를 탐구하고,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며 예술의 소재로 많이 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것(고전2:20)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세 번의 퍼포먼스 기회에서, ‘몸, 몸’ 거리는 예술가들에게 몸은 주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벗어날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고 평안을 되찾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두 번째는 저의 기독교인이자 한국인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주를, 세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일련의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퍼포먼스 내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또 다른

수업에서는 예술정책을 발전시켜서 발표하는 시간에 교회를 참여시키는 정책을 고안하여 25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 내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으로 끝내어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오신 것인가, 그의 몸 된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점철된 학교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나는 기독교인이며, 너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달라고, 내가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당신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에 열거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찬사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자신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마지막에 언급한 발표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정말 완벽하고 훌륭했다고 극찬을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비판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휘감으시면 복음도 이렇게 쉽게 전파가 됩니다. 지난 학기, 제가 집중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흑인 예술 운동, 게이 예술 운동, 모두가 자기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난다. 크리스천 예술 운동은 왜 안 되겠는가? 나는 크리스천 예술 운동을 하겠다. 이 작은 내가 이 학교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위촉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이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김승아

gratiaseul@gmail.com

요리에찬 II

나이는 40대 중반,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달리스트레스를 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대안으로 '맛집'에 관심을 갖는 중년남자들 중의 하나이다.

작년 가을, 일탈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회사근처의 일식요리학원에 등록을 하였고, 1년간의 과정을 어렵사리 수료하였다.

이후 간혹 주말에는 제법 그럴싸한 음식들을 만들어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불러 함께 하기도 한다. 요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요리를 만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즐겁다는 점이다. 누군가 나의 취미를 묻는다면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요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요리관련 소재의 콘텐츠에 당연히 관심이 많다. 지인의 추천으로 '마스터 셰프 US 시즌3' 라는 미국의 요리 대결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여러 참가자 중 '크리스틴'이라는 30대 초반의 베트남계 미국인 여자가 천재적인 미각과 눈물겨운 노력으로 그 시즌의 우승을 차지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지없이 밝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녀가 희귀병을 앓으며 10년 동안 점차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치명적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 딱 미국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영웅 드라마!"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여자의 우승을 예견하면서도 뽀롱뽀롱 감동을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다.

요리 경연이 후반으로 가던 어느 미션에서, 그녀는 수년 전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베트남풍 요리를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의 세 명의 심사위원 중에 정말이지 부드러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못돼 먹은 성질

머리와 협박한 독설로 출연자들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들던 '고든 램지'라는 요리사가 이렇게 심사평을 했다.

"나는 지금 두 가지 소원이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만든 이 요리를 당신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어머니가 이 요리의 맛을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훌륭한 요리다. 당신이 자랑스럽다."

서양인들 특유의 화법으로 표현한 고든 램지의 감동적 극찬에 크리스틴은 물론이고 다른 출연자들도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 회의 동영상 보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휴지로 눈물과 콧물을 닦아야만 했다.

얼마 후에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니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고 제안하였던 지인분과 만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분도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녀가 우승 이후에 출간한 책까지 사서 읽어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 책의 내용에는, 그녀에게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력도 잃어 실의에 빠져 있다가 불현듯 예전 '엄마의 음식'이 먹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레시피도 알 수 없었고, 더구나 눈이 멀어 샌드위치 한 조각도 만들 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스러워 '이제라도 해보자' 하며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순간 변칙, 나는 나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어렵다. 고향이 이북인 부모님 덕분에 난 명절만 되면 어느 식당과는 좀 다른

만둣국, 온반, 가자미 식혜 등 어머니 특유의 이북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께서 멀리 떠나신다면, 나에게 어느 보약보다 힘을 나게 해주던 '엄마의 음식'을 영원히 맛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슬픔이 생겼다. 당장 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 받아야 하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할까? 음성으로 인터뷰를 해서 녹음을 할까?

모든 나에게 '엄마의 음식'이 있을 것이다. 근사하던 그렇지 않던, 혹은 아주 독특한 맛이던 평범한 맛이던 '엄마의 음식'은 가족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머니 손맛을 몸 전체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엄마의 음식'에 젖어드는 우리의 입맛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뜨는 맛집이나 스타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정찬요리를 즐기는 것도 좀 나는 즐거움이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고 '엄마의 음식'을 지키고 즐기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장 평범한 일이 우리에게 '엄마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깨달았다.

음식은 단순히 허를 즐겁게 하고 포만감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추억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정성을 담은 것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리가 좋다.

JK필름 대표 김영민

Q&A

Q: 성경에 기록된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까?

A. 단적으로 두 곳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전3:20~21). '아버지의 집'이요, '하늘 처소'인 '낙원'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을 기다리며 머무는 '중간 단계'로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16:19~31)에 나타나 있으며,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삼층천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도바울이 '낙원'을 보고 왔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영광스런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천국'입니다(계21:1~3).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차별이 없으나 죽은 뒤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음부'를 거쳐서 영벌의 세계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신자들은 죽음으로 '낙원'에서의 참된 안식이 시작되며 항상 주님의 은혜가운데 머물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영혼을 '천국'에 갔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오과차와 이밀고

호흡기 건강은 생각 외로 신체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 호흡기에 이상이 생기면 코가 메마르며, 피부는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비듬이 잘 생긴다. 또한 변비도 잘 생긴다. 따라서 호흡기가 건강해지면 이런 증상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호흡기에 좋은 약차로 오과차가 있다. 오과차는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밤 7개, 생강 1덩어리의 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간다. 재료들을 1/2정도로 절편을 해(생강은 백 원 동전 크기 그대로) 주전자에 물 2ℓ를 넣고 2~3시간 약한 불로 달이다가 다시 물을 첨가하는 식으로 첫물의 양이 1.5ℓ가 되도록 한다. 오과차는 냉장고에 보관하며 마실 때는 따뜻하게 하여 꿀을 한 숟가락(티스푼) 넣어 복용하면 된다. 오과차는 원래 노인의 만성 기침용 처방으로 제조 방법을 약간 바꿔서 차처럼 만들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사용가능하다.

호두는 정력 증진 및 자양강장제이며, 간장과 위장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노인성 요통이나 불면증에 좋다. 은행은 호흡기 보강 효과가 아주 크며 소변이 찝뜨물처럼 탁하거나 잦을 때, 속창 '병'이라 불리는 대하증이나 숙취에도 좋다. 은행은 겉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쓴다. 밤은 기력을 보강하고 소화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론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 밤은 겉껍질만 벗기고 속 껍질째 쓴다. 대추는 '밤에 우는 아이를 재운다'는 신경안정제이다. 여기에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삭이는 생강을 배합했기에 오과차는 남녀노소의 호흡기를 보강하는 뛰어난 약차이다.

호흡기를 보호하는데 오과차만큼 좋은 게 이밀고이다. 이밀고는 어린이의 만성 기침에 효과가 있다. 다만 급성기보다는 특정 질환의 후유증으로 기침을 만성적으로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이밀고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큰 배의 위를 1/5정도 잘라 낸 후, 배의 몸통 가운데 먹지 않는 딱딱한 부분을 수저로 잘 긁어낸다. 그리고 그 안에 꿀을 넘치지 않게 위로 1cm 정도 남기고 넣은 후, 잘라둔 배 두껍을 덮고 손수건으로 보자기 싸듯이 배를 잘 싸맨다. 이때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게 뺀 손수건을 사용한다. 배를 작은 국그릇에 넣은 후 다시 다른 큰 용기에 넣어 물을 채우고 중탕으로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인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일그러지면서 안쪽의 겹도 국그릇에 흐르게 된다. 이후 수저를 이용해 배 안쪽의 살을 긁어서 그것을 꿀물과 함께 아이에게 복용을 시키면 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2숟가락 먹이고 설사를 하면 복용 횟수를 줄인다. 하루에 배 한 개 분량이면 충분하다. 추운 겨울 오과차와 이밀고로 가정에 건강이 깃들기를 소망한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